



6면

개청 60주년 농진청, 새 100년 연다

전주매일

2022년 9월 2일 금요일 (음 8월 7일)

제309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추석 앞두고 민생 속으로

김관영 도지사, 35사단 교동 119안전센터 등 찾아 장병·소방관 노고 치하

생생마을 한가위 큰장터 익산 전통시장 장보기 의료기관 등 찾아 온정 나눔



추석명절을 앞둔 1일 김관영 도지사가 일일 육군 35사단을 방문해 김철석 사단장과 이야기 나누며 지역 안보 수호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현장을 찾아 도민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을 맞이하기 위해 직접 민생현안을 챙기는 다채로운 활동을 벌이고 있다.

먼저, 김 지사는 1일 육군 35사단과 전주 교동 119안전센터를 각각 방문해 군사대비태세, 소방 안전대책 현장점검 및 기관 현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지역 안보와 민생안전에 헌신하는 군 지휘관과 장병, 소방관들 덕분에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명절 연휴기간 비상대비태세 강화로 격무에 시달리더라도 도민과 귀성객들이 고향에서 가족·이웃들과의 정을 흥신 나눌 수 있게 한다는 사

명감을 갖고 근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2일에는 도청 서편광장에서 코로나 19로 3년 만에 열리는 '생생마을 한가위 큰장터'에 참여해 도내 마을기업에서 생산한 우수제품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오는 7일에는 익산의 전통시장 3곳을 각각 방문해 추석 물가 동향을 직접 점검하며 제수품 장보기는 물론 도민들의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8일에는 명절 연휴기간 동안에도 코로나19 전담치료병원으로 검사와 치료를 담당하게 될 병원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등을 잇따라 방문해 격려할 계획이다.

한편 조봉업 행정부지사와 김종훈 정무부지사 등 도 간부공무원들도 7일 까지 군·경·소방 등 모두 10개 기관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할 방침이다. /김경수 기자



인파가 없어 텅 비어있는 무주 반딧불축제 행사장의 모습. 무주 반딧불축제는 오는 4일까지 펼쳐진다.

'쓸렁' 한 무주 반딧불축제... 옛 명성 퇴색 우려

관객 없어 주민들은 '한숨' ... 주관 제전위원들은 '뒷집'

무주 반딧불축제가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며 자연환경 글로벌 명에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으나 반딧불축제 제전위가 축제의 명성을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무주 반딧불축제가 민간 주도 축제로 열리며 전 국민의 호응을 받아오다가 갑자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년의 공백을 거쳐 어렵게 3년 만에 축제가 개최돼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펼쳐지고 있으나 쓸렁한 인파에 정작 흥행에는 실패했다는 것이 지역민들의 일반적 평가다.

무주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는 이번 축제를 기획·준비하고 운영·집행까지 주관하고 주도하고 있지만 정작 이 같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안주하고 있다. 하지

만 무주군 공무원들은 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각자의 맡은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축제제전위원회(위원장 진용훈) 측은 행사는 잘 되고 있으며 방문객에도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심지어 언론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말로 평가절하했다.

주민 M씨(59·적상면)는 "반딧불 축제는 국고 보조도 없는 군민의 혈세 22억이나 되는 축제예산을 어디에 쓰였는지 소상하게 날달이 밝혀져야 한다"면서 "군민들의 혈세 예산을 논의하는 승인만 해주고 이후 집행 내역을 제대로 확인이나 하고 있는지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주민 J씨(56·무주읍)는 "무주군 민들의 자부심인 반딧불축제에 관

람객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눈으로 확인되는 작금의 현실에 분노가 치민다"면서 "인파가 없는 쓸렁한 상황에서도 반딧불축제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보조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을 전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 반딧불축제는 1997년 제1회를 시작으로 1999년 문화관광축제 지정 이후 2001~2012년까지 우수축제, 2013~17년까지 최우수축제를 거치고,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넘어 명예 문화관광축제로는 금자탑을 쌓아 왔다. 이는 무주군민들의 노력한 결실에 군민 자부심과 주민 애환까지 서려 있는 명실상부한 군민의 큰 자랑이요 자사의 축제로 명성을 유지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축제가 옛 명성을 잃어가고 있어 군민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전북 도시가스 소매요금 평균 1.69% 인하

전주권역 동결·군산 1.31%·익산 9.13% 인하 조정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전북지역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을 평균 1.69%(0.0335원/MJ) 인하하고, 기본요금(700원/월)을 동결한다.

도는 물가대책 실무위원회의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조정·심의를 통해 도시가스별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도시가스 평균 공급비용은 권역별 3개 도시가스사에 따라 동결 또는 인하했다. 사별로는 전북도 도시가스가 메가줄(MJ, 열량단위) 당 1.8305원(동결), 군산도시가스가 1.7475원(0.0232원 인하), 전북에너지서비스가 2.5545원(0.2568원 인하)으로 결정됐다.

도시가스 요금조정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물량 감소,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배관 투자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했다.

특히 인건비 상승 공급 확대를 위한 투자비 등 일부 인상 요인은 도시가스 사별 원가절감을 통해 인하하도록 조율했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89%)과 도시가스사의 소매 공급비용(11%)을 합산해 결정된다. 도매요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매월 승인·고시하고, 소매 공급비용은 도시가스 공급, 판매,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을 고려해 도지사가 매년 1회 조정, 소비자 요금에 반영하고 있다.

주택용 기본요금은 2007년 810원에서 750원으로 인하된 후 16년째 동결됐으며, 전국 주택용 기본요금 평균보다 90여 원 낮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번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해 평균 1.69% 인하를 결정했으나, 소비자 요금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매요금이 최근 가파르게 상승해 월 평균 50㎡를 사용하는 주택용 소비자의 경우 전년 대비(지난해 9월 기준) 월 6,000원 정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대식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에너지 사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고,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도시가스 배관 확충 및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지속 추진해 도민의 에너지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다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